

# 안방 꺾찬 한승택 '한방마님'



김민식 부상에 주전 포수...KIA 공·수 '존재감'

타율 0.295·장타율 0.492...도루 저지 7회

"늘 실점 안하는게 목표...방망이 더 뜨거워 질 것"

KIA 타이거즈의 '안방마님' 한승택이 여름을 기다린다.

올 시즌 포수 한승택은 매서워진 창과 두터워진 방패로 안방을 굳게 지키고 있다.

대수비로 많이 뛰었던 지난 시즌 한승택은 61경기에 출장해 데뷔 후 가장 많은 89타수를 채웠다. 하지만 올 시즌은 1일 경기 전까지 24경기에 나와 벌써 61타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형 포수'로 꼽히는 한승택은 올 시즌에도 안정감 있는 수비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다.

한승택은 지난 30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는 '4년 연속 도루왕'을 차지한 박해민의 도루를 막는 등 올 시즌 7차례 도루 저지도 기록했다.

달리진 '화력'도 눈길을 끈다.

한승택은 올 시즌 24경기에서 61타수 18안타로 0.295의 타율을 기록했다. 18개의 안타에는 홈런 두 개도 포함돼 있다.

특히 4월 13일 문학에서 기록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은 팀의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한 대타 만루 홈런이었다. 한승택은 또 4개의 2루타와 함께 3루타도 하나 기록하면서 0.492의 장타율을 찍고 있다.

한승택은 역시 타력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박찬호와 함께 KIA의 알짜배기 하위 타순을 구축하고 있다.

준비와 기회가 한승택의 공격 원동력이다.

한승택은 "캠핑에서 타격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지난해 정성훈 선배(현재 코치)의 타격을 따라했었는데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캠핑에서 배우기도 하고 내 것까지 더해져서 지금 폼이 만들어졌다"며 "예전에는 주로 대수비로 들어가다가 타격을 하니 무조건 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공 맞추는 데 바빴는데 지금은 기회가 많으니 조금 더 편하게 내 수위를 하고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빼고 치려고 한다. 예전에는 마지막 타격 순간에 힘을 주면 비켜나갔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스윙하려고 한다. 가볍게 쪽 밀면서 치는 느낌을 몇 차례 받았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손목을 쓰는 법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팀의 답답했던 행보와 달리 좋은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한승택은 '여름'을 주목하고 있다.

한승택은 "예전에는 2군에서도 좋다가 타격 페이스가 푹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뛰는 게 처음이라서 더 경기를 해보야 타격이 어떻게 될지 알 것 같다"며 "날 더워지면 그때가 진짜일 것 같다. 아직 100경기 이상 남았다. 체력이 중요하니까 유지해야 한다.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석에서 달라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포수 한승택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실점이다. 최대한 안방을 지키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는 게 한승택의 목표다.

한승택은 "지금까지 실점 많이 했으니 앞으로 최대한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팀이기는 데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며 "타석에서는 1일 1출루가 목표"라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승택

## 덕아웃 T 특특

▲야구 인생 최고 스피드라 = 공을 던지는 이도 지켜보는 이도 놀란 스피드다. 지난해 퓨처스 리그 2관왕에 빛나는 '예비역' 전상현은 지난 4월 24일 1군에 등록되어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6~7km 늘어난 직구 스피드가 눈길을 끈다. 전상현은 "올 시즌 최고 스피드는 146km 가 나왔다. 야구 인생 최고 스피드라서 나도 놀랐다"며 웃었다. 그는 "2군에서 하체 쓰는 법을 배우고 연습 많이 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셨다"며 "볼 스피드가 나오니까 더 편하게 승부를 한다. 공 회전도 좋아지고 볼 끝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1군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전상현은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준비했던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지금 페이스 유지해서 시즌 끝까지 있고 싶다. 자신감 있게 던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몸이 안 움직였어요 = 마음과 달랐던 한승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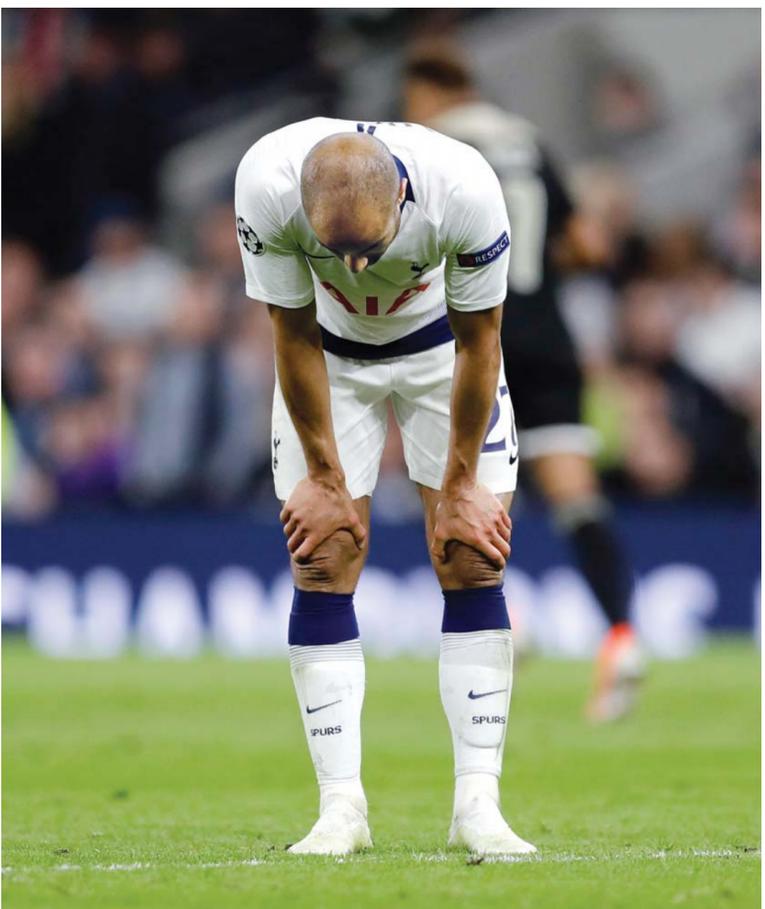
## 전상현 "직구 146km, 인생 스피드"

의 다리였다. KIA가 삼성을 상대로 8-0 영봉승을 거뒀던 지난 30일, 한승택은 3회말 1사에서 우측 2루타로 출루하며 KIA 공세를 알렸다. 이어 이명기가 우측으로 공을 보내면 분위기를 이었다. 하지만 2루에 있던 한승택이 스타트를 늦게 끊으면서 홈으로 향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김선빈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안치홍의 볼넷 뒤 최형우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루에 있던 한승택과 함께 2루 주자 이명기도 홈을 밟았다. 먼저 홈에 들어온 한승택은 뒤이어 홈인한 이명기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자신의 주루 때문에 이명기가 타점을 울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한승택이다. 한승택은 1일 "우측으로 공이 가면 무조건 킨다고 생각을 했었다.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말을 안들었다. 주루를 많이 안 해봐서 실수했다. 명기 형이 괜찮다고 웃더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라운드 밟고 정신차렸어요 = 1일 긴장감

가득한 표정으로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는 신인이 있었다. 1일부터 육성 선수의 정식 선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었던 대졸 신인 오선우가 이날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59번의 배번을 받은 그는 바로 1군에 콜업돼 끝없는 하루를 보냈다. "기분이 명한데,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 밟고 나서 정신차렸다. 후회 없이 하고 싶다. 타격에 자신이 있는데 타격만 잘해서 1군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다. 주력어랑 송구 연습도 많이 했다. 후회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KIA는 오선우를 콜업하면서 '베테랑' 이범호를 말소했다. 이범호 말소 소식을 전한 김기태 감독은 "마음이 좋지 못했다.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며 "(오선우가) 어께가 좋고 2루타, 3루가 많다고 한다. 고척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흥민이만 있었어도..." 토트넘 홋스퍼의 루카스 모우라가 1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약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득점 기회를 놓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쏘니' 공백 채워지지 않았다

경고 누적에 챔스 4강 1차전 결장

토트넘, 아약스에 0-1 패

9일 2차전 원정 다득점 결승 좌우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경고누적으로 빠진 토트넘이 아약스(네덜란드)와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무릎을 꿇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약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15분 아약스의 도니 판더베이크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0-1로 패했다.

홈에서 아약스에 일격을 당한 토트넘은 오는 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라프트 스타디움에서 준결승 2차전을 통해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해결사' 손흥민이 경고누적으로 빠지고, '골잡이'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다.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마저 사타구니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사실상 '차포'를 땀 상황으로 아약스와 상대했다.

루카스 모우라와 페르난도 요렌테를 투입으로 앞세운 3-4-1-2 전술로 나선 토트넘은 예봉이 무뎠던 상황에서 아약스에 이른 결승골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원정에서 공세를 펼친 아약스는 전반 15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하킵 지어흐가 투입한 '킵 패스'가 도니 판더베이크에게 연결됐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은 판더베이크는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홈 경기에서 먼저 실점한 토트넘은 전반 26분 키어런 트리피어의 프리킥에 이은 요렌테의 헤딩슛이 골대를 벗어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토트넘은 후반 10분 트리피어의 크로스에 이은 알리의 헤딩슛이 골대를 벗어나며 동점골 기회를 날렸다.

오히려 토트넘은 후반 32분 추가골을 내줄 뻔했지만 '골대'가 살렸다.

아약스는 역습 상황에서 두산 타디치의 패스를 받은 다비드 네레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이 토트넘의 오른쪽 골대를 때리고 나오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교체명단에 공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토트넘은 후반 34분 수비자였던 벤 데이비스와 후반 포이스를 동시에 투입하며 측면을 통한 공세에 주력했지만, 번번이 아약스의 수비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토트넘은 경기 막판까지 동점골을 노렸지만 어렵다 할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홈에서 패배를 떠안았다. /연합뉴스

## 불방망이 추신수 ... 벤치 지킨 강정호

추, 멀티히트로 시즌 타율 0.333...승부는 4-6 피츠버그 역전승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부진에 빠진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앞에서 압도적인 타격감을 뽐냈다.

추신수는 1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피츠버그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를 쳤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30에서 0.333(102타수 34안타)으로 조금 올랐다.

시즌 타율 0.160으로 부진한 강정호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채 벤치에서 추신수의 활약을 지켜봤다.

추신수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생산했다.

추신수는 1회 말 상대 우완 선발 조던 라일스의 시속 150km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치며 6경기 연속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그의 1회 타율, 1회 선두타자 타율은 더 올라갔다.

추신수는 올해 1회에 20타수 14안타(타율 0.700)로 매우 강하다. 1회 선두타자로 나섰을 때의 타율은 무려 0.722(18타수 13안타)이다.

3회 파울업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말 선두타자로 나서서 좌완 불펜 스티브 브롤의 시속 151km 빠른 공을 공략해 좌전 안타를 생산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12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했다.

추신수는 8회 유격수 팡블로 돌아섰다.

마지막 타석은 아쉬웠다. 3-3으로 맞선 9회 말 1사 2루에서 추신수는 키오니 겔라의 시속 133km 커브를 정확하게 받아쳤으나 중견수 정면으로 날아갔다. 한편 경기는 연장 11회 혈전 속에 피츠버그의 6-4,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났다. /연합뉴스